

국외출장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글로벌전략연구본부 국제개발협력센터	성명	한덕훈	직급	연구위원	보안교육 수강여부	O
				김주형		부연구위원		O
				임해주		연구원		O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ODA 사업 운영)		
	○ 출장목적 :							
	①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과의 해양수산 협력 기반 동향 파악 - Deep Sea Mining Summit 2026(2026 심해저 광물 채굴 국제 포럼) 참석 - 글로벌 사우스 국가 대상 정책 수요, 기술적·제도적 수요 파악 등 해양자원 협력 동향 파악 - 한국의 심해저 광물 탐사 노력 공유 및 향후 협력 가능성 조사 - 해양수산 연계 사업형 ODA 사업 개발·설계 방안 검토 ②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사업 관련 업무 추진 - 테마항 개보수공사 현장 점검 - 수혜자 대상 모니터링(중간선 조사) 실시 - 가나 「수산물 가공 및 유통 개선 방안 마스터플랜」 수립 협의							
	- 「글로벌 해양정책 연구협력 생태계 구축사업(글로벌 사우스 해양수산 국제 협력 기반 구축 사업)」(적립금) (사업기간: 2026.1.1. ~ 2026.12.31.) (일부집행) -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강화 사업」(수탁) (사업기간: 2025.10.1. ~ 2026.6.30.) (일부집행)							
관련사업 (예산항목)	사업 계획 상 예산 반영 여부			☒ 반영	☐ 출장지 대체	☐ 해당없음(수탁)		
공무 항공마일리지 활용계획	성명	보유 마일리지		활용계획		미활용 사유		
	한덕훈	14,560		미활용		마일리지 부족		
	김주형	62,735		미활용		보너스 좌석 없음		
	임해주	32,250		미활용		마일리지 부족		
출장기간	한덕훈	2026.4.20.~25. (4박 6일)		출장지		영국 런던		
	김주형, 임해주	2026.4.20. ~ 5.1. (10박 12일)				영국 런던, 가나 아크라 및 테마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 교통수단		
	4.20(월)	부산(08:05) → 인천(09:10)		이동		KE 1404		
		인천(10:55) → 런던(17:25)		이동		KE 907		
	4.21(화)	오전	런던	전문가 자문회의		-		
		오후		전문가 자문회의		-		
	4.22(수)	오전	런던	Deep Sea Mining Summit 2026 참석		-		
		오후				-		
	4.23(목)	오전	런던	Deep Sea Mining Summit 2026 참석, IMO 업무 협의		-		
		오후				-		
	4.24(금)	오전	런던	국제 생물다양성 파트너십 전문가 업무 협의		-		
		오후						
저녁		(한덕훈)	이동		KE 908			

출장일정			런던(19:35) → 인천(16:15, +1)		
	4.25(토)	오후	(김주형, 임해주) 런던(13:30) → 아크라(19:10)	이동	BA 081
		오후	(한덕훈) 인천(18:25) → 부산(19:35)	이동	KE 1407
	4.27(월)	오전	아크라	수산위원회(FC) 업무 협의 1	-
		오후		대한민국 재외공관 면담	
				가나 해양수산 협력 현안 협의 1	
	4.28(화)	오전	아크라 → 테마	이동	차량 이동
			테마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가나 사업 모니터링 및 이해관계자 협력 논의	
		오후	테마 → 아크라	이동	
			아크라	FC 업무 협의 2	
			4.29(수)	오전	
	테마	시설 운영 준비 상태 점검			
	오후	테마		사업 수혜자 대상 모니터링	
테마 → 아크라		이동			
아크라		가나 해양수산 협력 현안 협의 2			
		가나 해양수산 협력 현안 협의 3			
저녁	아크라(22:00) → 암스테르담(06:45, +1)	이동		KL 590	
4.30(목)	암스테르담(21:20) → 인천(16:40, +1)		이동	KE 926	
5.1(금)	인천(18:25) → 부산(19:35)		이동	KE 1407	
출장 성과	○ 국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동향 확보 - Deep Sea Mining Summit, IMO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심해저 채굴, 해사 안전, 해양 거버넌스 등 글로벌 정책 동향을 파악하고 향후 해양수산 ODA 및 국제협력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기반 강화				
	○ 가나 ODA 사업 성과 점검 및 지속가능성 확보 기반 마련 - 사업 공정 진척, 운영 준비 상태, 수혜자 활용 계획 등을 종합 점검하고, 운영관리 체계, 수익 창출 구조, 사후관리 방향 등 핵심 과제를 도출하여 사업 종료 이후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실행 기반 마련				
향후 계획	○ 심해저 채굴 관련 국제협력 대응 및 사업 연계 검토				
	○ 가나 ODA 사업 후속 조치 및 4차년도 이행 준비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ODA 사업 운영)
업무①	4.21(화) 개발도상국 해양관리 및 국제협력 동향 이해관계자 협의
수행계획	□ (오전) 국제환경개발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면담 - 참석자: 한덕훈 본부장(총괄),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Camilla Toulmin, Dilys Roe, 심해저 개발 사업 업무 담당자 등 - 내용: · 공해 및 국가관할권 밖 해역 관련 국제 거버넌스 동향 파악 · 개발도상국 해양자원 관리 및 협상 역량 강화 지원 사례 조사 · 심해저 자원 개발 관련 국제 정책 및 환경관리 논의 동향 파악 · 개발도상국 대상 해양관리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 (오후) IMO Smart-C 사업 관계자 면담 (해수부 ODA 사업 현장 점검) - 참석자: 한덕훈 본부장(총괄),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김영소 부국장, 백영주 팀장, Tamar Brabadze PM 등 - 내용 : · IMO Smart-C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성과 파악 · 디지털 해양관리 및 해상 안전관리 기술 동향 조사 · 개도국 대상 Smart-C 사업(개도국 해양관리 역량 강화 지원) 적용 사례 및 협력 가능성 검토 · 해양활동 증가에 대응한 심해저 자원 개발 및 해양활동 확대에 따른 관리 필요성 논의
수행결과	※ 국제환경개발연구원 요청에 따라 회의 취소 ※ 당초 4.22(수) 예정된 심해저 관련 전문가 자문 4.21(화)로 일정 변경 □ (오전) 심해저 광물 개발 국제 규제 및 거버넌스 전문가 회의 1 - 참석자: 한덕훈 본부장(총괄),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Nicholas Renzler - 내용 : · 심해저 광물 개발과 관련하여 국제 규범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은 과도기적 단계에 있으며, 특히 ISA 중심의 규제 체계가 이해관계국 간 이견으로 지연되고 있어 향후 법적 불확실성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청취 · 심해저 자원 개발은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체계 하에서 '인류 공동유산(common heritage)' 원칙이 적용되며, 국가 및 기업 간 분쟁 가능성이 높아 투자 및 사업 참여 시 국제분쟁 대응 역량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경우 기술·자본 제약으로 인해 단독 개발보다는 국제 컨소시엄 또는 선진국과의 협력 구조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으며, 향후 역량강화 및 제도 구축을 포함한 협력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 · 심해저 광물 개발은 환경 규제, 국제법, 투자 리스크가 결합된 고위험·고불확실성 분야로, 단순 자원개발 접근보다는 환경관리, 법·제도 자문, 기술 협력 등 간접적·단계적 협력 전략이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을 제시 ※ 당초 4.23(목) 예정된 심해저 관련 전문가 자문 4.21(화)로 일정 변경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오후) 심해저 광물 개발 국제 규제 및 거버넌스 전문가 회의 2 - 참석자: 한덕훈 본부장(총괄),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Lea Kolmos Weis - 내용 : · 심해저 광물 개발 관련, ISA 주도의 채굴 규정(exploitation regulations) 마련이 진행 중이나, 환경 기준, 이익 공유, 책임 범위 등에 대한 회원국 간 이견으로 협상 장기화가 예상된다는 점을 공유 · 특히 규제 체계는 탐사(exploration)에서 상업적 채굴(exploitation) 단계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에 있으며, 향후 환경영향평가(EIA), 모니터링, 책임·배상 체계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는 자문 의견 제시 ·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참여 확대와 관련하여, 단순 지분 참여보다는 법·제도 이해, 계약 협상 역량, 규제 대응 능력 등 '거버넌스 역량 강화'가 선행되어야 실질적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청취 · 심해저 광물 개발 협력은 자원 개발 자체보다 규제 대응, 환경 관리, 법적 리스크 관리 역량을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개발협력 사업에서도 제도 구축 및 역량강화 중심 접근이 효과적이라는 점을 확인
수행결과	※ IMO 관계자 요청에 따라 4.23(목)으로 일정 변경 - 참석자: 한덕훈 본부장(총괄),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김영소 국장, 백영주 팀장, 박종철 팀장 - 내용 : · IMO Smart-C 사업은 개도국 해양관리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이며, 특히 여성 해사 인력 역량강화(SMART-C Women) 및 해상교통안전(Traffic) 분야에서 가시적 성과 창출. 교육(온라인·대면), 장학 프로그램, 시범국 마스터플랜 수립,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를 결합한 통합형 사업 구조를 통해 참여국 만족도 및 정책 수용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 · 디지털 해양관리 및 해상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해상교통안전 시스템, Maritime Single Window, 자동화 항만 운영 등 디지털 기반 관리체계 구축이 주요 기술 트렌드로 확인되었으며, 탈탄소화 및 해사 디지털 전환이 핵심 협력 의제로 부상 · 협력국 대상 Smart-C 사업은 단순 기술 이전을 넘어 교육·제도·네트워크를 결합한 역량강화 중심 접근이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며, IMO 국제규범 이행 지원과 연계된 다자협력 구조가 사업 지속성 및 확장성 측면에서 유효한 것으로 분석 · 해양활동 증가 및 해양공간 이용 확대에 따라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환경 규제 대응,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심해저 자원 개발 등 신규 해양활동 확대에 대응한 국제규범 기반 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 확인 · ODA 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와 관련하여, 최근 국무조정실 및 외교부를 중심으로 성과기반 관리 및 평가체계 강화 기조가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성을 공유하고, 연례 이행 보고서 작성 시 단순 사업 실적 보고를 넘어 예산 집행 현황, 성과지표 기반 평가 결과, 개선사항 등을 함께 포함하도록 관리체계를 고도화할 것을 제언. 특히 중간 단계에서는 경량화된 내부 점검을 통해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최종 단계에서는 종합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 여부를 검증하는 단계적 평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전달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②	4.22(수)~4.23(목) 2026 심해저 광물 채굴 국제포럼 참석
수행계획	□ (4.22 수/ 오전) 포럼 참석 (발표) (한국의 최근 심해저자원 개발 현황 및 방향) - 참석자 : 한덕훈 본부장,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포럼 관계자 및 전문가 등 - 세션 : · 국제 해양법 및 제도 동향(International legal developments) · 심해저 광물 개발 규제 체계(Regulatory frameworks) · 국제해저기구(ISA) 거버넌스(ISA governance) - 내용: · 국제해저기구(ISA) 중심의 심해저 광물 개발 규제체계 및 제도 변화 동향 · 개도국의 심해저 자원 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협력 가능성 검토 ·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관련 국제 협력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지원 사례 조사 · 심해저 자원 개발 관련 국제 협력사업 및 ODA 사업 추진 가능 분야 도출
	□ (4.22 수/ 오후) 포럼 참석 - 참석자: 한덕훈 본부장(총괄),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포럼 관계자 및 전문가 등 - 세션: · 지속가능 심해저 광물 개발(Sustainable Seabed Mineral Extraction) · 환경 관리 및 영향 평가(Environmental Management / Environmental Impact) · 산업 및 시장 동향(Industry and Market Developments) - 내용: · 심해저 광물 채굴 관련 환경 영향 관리 및 지속가능 개발 사례 조사 · 개도국 대상 환경관리 및 역량 강화 협력사업 추진 사례 조사 · 심해저 자원 개발 관련 기술 및 사업 모델의 개도국 적용 가능성 검토 ·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분야 신규 협력사업 및 ODA 사업 발굴 기초자료 확보
	□ (4.22 수/ 오후) 심해저 광물 개발 국제 규제 및 거버넌스 전문가 회의 - 참석자: Nicholas Renzler, Bryan Bille, 한덕훈 연구위원,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등 - 내용: · 심해저 광물 개발 국제 규제 및 거버넌스 동향 ·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심해저 자원 개발 현황 및 협력 방안 논의
	□ (4.23 목/ 오전) 포럼 참석 - 참 석 자: 한덕훈 본부장(총괄),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포럼 관계자 및 전문가 등 - 세션: · 채굴 시스템 및 운영 기술(Collection System Technology) · 채굴선 설계 및 운영(Mining Vessels and Operations) · 자동화 채굴 시스템(Autonomous Mining Systems) - 내용: · 심해저 광물 채굴 관련 핵심 기술 및 운영 방식 조사 · 개도국 해양자원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 협력 가능 분야 검토 · 해양관측 및 해양관리 기술의 개도국 적용 가능성 검토 · 심해저 자원 개발 관련 기술협력 ODA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4.23 목/ 오후) 포럼 - 참 석 자: 한덕훈 본부장(총괄),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포럼 관계자 및 전문가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세션: · 심해저 생태계 영향(Ecological Integrity) · 환경 영향 저감 기술(Environmental Protection Measures) · 심해저 광물 개발 전망(Future Outlook) - 내용 : · 심해저 광물 채굴 관련 환경관리 및 생태계 보호 정책 동향 조사 · 개도국 해양환경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 검토 · 심해저 자원 개발 관련 국제 협력 수요 및 지원 분야 (토론) ·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 분야 협력 모델 도출 및 ODA 사업 기획 방향 검토 · 향후 주요국 (미국, 호주, 영국, 한국 등) 및 ISA의 심해저 자원 탐사 추진 전망 및 협력방향 (토론) □ (4.23 목/ 오후) 심해저 광물 개발 국제 규제 및 거버넌스 전문가 회의 - 참석자: Lea Kolmos Weis, Paul Krause, 한덕훈 연구위원,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등 - 내용: · 심해저 광물 개발 국제 거버넌스 및 협력 동향 협의 ·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심해저 자원 개발 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수행결과	□ (4.22 수/ 오후) 포럼 참석 - 참석자 : 한덕훈 연구위원,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DSM 서밋 발표자 및 토론자, Wolfgang Bernhart (Roland Berger), Bryan Bille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James Deckelman (Deep Sea Minerals Corp.) - 내용: · 최근 글로벌 논의의 핵심은 “핵심광물 = 안보자산”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며, 중국의 정제·가공 지배력이 그 핵심 도전과제라는 점을 고려 · 미국 등 여러 국가는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적극 투자 중이며, 이런 상황에서 심해저 광물은 전략적 대안으로 부상 중 · Bryan Bille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 James Deckelman (Deep Sea Minerals Corp.) : 심해저 광물은 고품위 자원으로 경제성 잠재력 크고, 육상 대비 폐기물·탄소 배출이 낮을 가능성 제시 · AI 기반 선택적 채취 기술 강조하며, 개발 속도가 육상보다 빠를 수도 있음. 다만 정제·가공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 □ (4.22 수/ 오후) 포럼 참석 - 참석자 : 한덕훈 연구위원,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Nicholas Renzler (Foley Hoag), Oliver Gunasekara (Impossible Metals) DSM 서밋 발표자 및 토론자 - 내용: · ISA 체제와 미국 단독 규제 구조 충돌하는 최근의 상황으로 국제해양법상 심해저는 “인류 공동 유산” 원칙 적용 · 미국은 UNCLOS 비가입 상태로 별도 추진중으로 국제적으로 본다면 이중 규제 체계가 발생될 가능성이 상존하며, 기업 입장에서는 법적 불확실성 증가 · Oliver Gunasekara (Impossible Metals) (EUREKA 채굴) 심해 생태계는 데이터 축적 중이나 여전히 정보가 불완전함. 노들은 단순 자원이 아닌 “서식지” 역할 · 플룸, 서식지 손실, 연결성 붕괴 주요 영향으로 한번 파괴시 회복 속도 매우 느림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4.23 목/ 오전) 포럼 참석 - 참석자 : 한덕훈 연구위원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Brandon Tuck (Vinson & Elkins), Paul Krause (Ramboll) DSM 서밋 발표자 및 토론자 - 내용: · 기술보다 “허가 실패”가 가장 큰 리스크로 사료되며, 미국의 심해저광물자원법 (DSHMRA)의 기준은 환경에의 “중대한 영향 없음” 입증 필요 · 소송은 다중 법률 기반으로 제기됨. 미국의 면허를 내주더라도 그 판단 근거가 자의적이거나 변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기록(데이터)이 부족하면 즉시 무효 가능 · Paul Krause (Ramboll) (심해저탐사의 생태적 통합성 관리- 영향 비교·규모 논쟁): 영향은 활동 유형과 규모에 따라 다름. 기존 산업(어업 트롤링, 연근해석유채굴)이 더 큰 면적 영향을 줄 수도 있음 · 그러나 심해는 미개발되어 있으며, 원시적 환경으로 동일 영향이라도 결과는 다를 수 있음. 데이터 부족 시 사전예방 원칙을 적용할 필요성 존재 □ (4.23 목/ 오후) 포럼 참석 - 참석자 : 한덕훈 연구위원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Christopher Williams (Glomar Minerals), Lea Kolmos Weis (Gorssen Federspiel), DSM 서밋 토론자 - 내용: · ISA 심해저 규정은 느리지만 최근 정치적 압력으로 속도를 회복 중 · 국제거버넌스 반작용으로 미국, 국제도 등 대안적 심해저 규제체계가 등장 중 · 심해저 채굴은 단순 산업 발전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 공급망 경쟁의 일부 · Lea Kolmos Weis (Gorssen Federspiel): 심해저 자원은 인류 공동유산으로 국제심해저기구 (ISA)의 독점 관리 구조를 가지나, 현재 ISA 시스템은 탐사 중심으로 대규모 상업채굴화 대응 부족 · 검사(Inspection), 이행(Compliance), 집행(Enforcement)의 ISA 3단 구조로서 다양한 모델 논의 끝에 Compliance Committee 설립 합의하였지만, 권한 분배는 아직 미완성
업무③	4.24(금) 국제 생물다양성 파트너십 전문가 면담
수행계획	□ (오전) One Health 개념과 해양수산 ODA 연계사업 협의 - 참석자 : 한덕훈 연구위원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도혜선(전 EAAFP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등 - 내용: · 국제기구 One Health 사업 추진 현황 및 주요 내용 파악 · 해양수산 분야 One Health 적용 가능성 검토 · 개발도상국 대상 One Health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 및 해양수산 ODA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 가나 등 협력국 대상 One Health 협력 방향 논의 ·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수행결과	□ (오전) One Health 개념과 해양수산 ODA 연계사업 협의 - 참석자 : 한덕훈 연구위원 김주형 부연구위원 임해주 연구원 도혜선(전 EAAFP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 - 내용 : · One Health는 보건 분야에 한정된 개념이 아니라 인간 건강, 동물 및 해양수산물 건강, 식품안전, 환경오염, 기후변화, 안정적인 생계가 상호 연결된다는 통합적 접근이므로, 해양수산 ODA의 사업 범위를 수산 생산성 향상에서 수산식품 안전, 양식질병 관리, 해양환경 보전, 지역사회 건강·영양 개선까지 확장하는 분석틀로 활용 가능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국제기구의 One Health 추진 현황을 검토할 때에는 WHO, FAO, WOAH, UNEP 등 주요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제시하는 One Health 개념, 공동행동계획, 항생제 내성 대응, 인수공통 감염병 예방, 식품안전, 생태계 건강, 환경오염 관리, 기후변화 대응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성 있음
- 2026년 4월 프랑스 리옹에서 개최된 One Health Summit은 인간, 동물, 식물 및 생태계 건강의 상호의존성을 국제 보건·환경·식량안보 의제로 재확인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으며, 동 회의는 보건위기, 기후위기, 생태계 위기, 식품안전 위기 등이 서로 분리된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 아래 과학 기반의 예방적·부문 간 협력 접근을 강조. 특히 One Health 접근이 인간·동물·식물·생태계 건강을 함께 다루는 방식이라고 설명하는 WHO, FAO 등 국제기구의 통합적 관점을 리옹 회의는 국제 협력 의제로 확산하는 계기
- 해양수산 분야의 One Health 적용 가능성은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인간 건강, 수산생물 건강, 해양환경 건강이 동시에 영향을 주고받는 지점을 중심으로 검토 가능. 예를 들어 양식장의 질병 발생과 항생제 사용은 수산생물 건강과 생산성 문제인 동시에 수산식품 안전과 항생제 내성 문제로 연결되며, 어항과 어시장의 위생 수준은 지역 주민의 식중독 예방과 수산물 상품성에 영향을 미치고, 해양쓰레기와 연안오염은 어장환경 악화, 수산자원 감소, 오염물질의 유입, 어업인 생계 불안을 동시에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수산 분야는 One Health 적용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 ODA 영역으로 판단
- 개발도상국 대상 One Health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은 기존 보건 ODA와 별개의 신규 사업을 만드는 방식뿐 아니라, 기존 해양수산 ODA 사업에 One Health 요소를 접목하는 방식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
- 가나 여성어업인 가공 및 유통 역량 강화 사업과 One Health의 연계 가능성은 매우 높으며, 해당 사업은 여성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시장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면서도 동시에 수산식품 안전, 작업환경 개선, 연가·열 노출 저감, 위생적 보관·운송, 지역 소비자의 건강 보호, 폐기물·오염 관리, 지속가능한 연안 생계 기반 강화라는 One Health 성과를 창출 가능. 가나 여성어업인 사업을 대상으로 One Health 체크리스트, 성과지표, 다부처 협력체계, 식품안전·환경·건강 통합 모니터링을 적용해 볼 것을 제안

사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④	4.27(월) 가나 여성어업인 사업 관계자 및 주가나 재외공관 업무 협의
수행계획	□ (오전) 수산위원회 또는 인근 회의실 - 목적: 가나 여성어업인 사업 추진 점검 및 사업계획 논의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가나 FC 관계자 등 - 내용 • 3차년도 사업 추진 점검 · 3차년도 사업 추진 현황 점검 · 기자재 입찰, 조달, 설치 과정 점검(현지 입찰) · 성과지표 달성도 및 잔여 과제 확인 · 국가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 의견 · 교훈 및 시사점 도출 및 4차년도 연계 논의 • 4차년도 사업 계획 논의 · 1~3차년도 사업 성과 종합 점검 · 4차년도 세부 추진계획 공유 · 성과 지표 달성 전략 및 모니터링 및 평가(M&E) 계획 협의 · 운영·관리 이관 및 출구전략 로드맵 수립 · 사후관리 및 후속협력 방안 논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오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 - 목적: 주가나 재외공관 관계자 면담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재외공관 대사, 개발협력 업무 담당자 등 - 내용: · 가나 여성어업인 사업 추진 경과 및 마무리 단계 협조 요청 · 신규 해수부 ODA 사업(가나 어선원 양성, 샤마 지역 어항개발 사업) 추진 계획 공유 · ODA 사업 관련 외교부 심의 대응을 위한 공관 협조 요청 · 한-가나 해양수산 협력 확대 방안 논의
수행결과	□ (오전) 수산위원회 회의실 - 목적: 가나 여성어업인 사업 추진 점검 및 사업계획 논의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가나 FC 관계자 등 - 내용: · 3차년도 사업 점검 결과 관련 기자재 설치는 정상 추진 중이며, 건축 공사는 다소 지연되어 2026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조정되었음을 공유하고 이에 따른 성과 일정 조정 방향을 논의 · 성과지표 달성 현황과 관련하여 인프라 구축 지표는 일정 영향이 있음을 설명하고, 역량강화 교육 성과를 지역사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협의함 · 공동체 기반 시설 운영·관리의 어려움과 관련하여 재정 자립을 위한 수익 창출 구조(사용료 부과 등) 도입 필요성을 논의하고, 운영 역량 강화 방향을 공유 · 위생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운영 프로토콜 수립 필요성을 전달하고, 여성 어업인 협회를 중심으로 관리체계 구축 계획을 설명함. 아울러 환경·안전 관리(화재 대응 등) 필요사항을 함께 논의 ·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하자보수 기간 사항을 공유하고, 유지·보수 비용 산정 및 예산 확보 필요성에 대해 논의함. 또한 FC의 지속적 참여 중요성을 전달 · 운영·관리 이관 및 출구전략과 관련하여 FC의 역할(모니터링 및 교육 중심)을 설명하고, 사업 종료 전 자립적 운영체계 구축 방향을 협의 · 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하여 3차년도부터 조사·연구를 착수 중임을 설명하고, 4차년도에는 이해관계자 참여 기반 논의의 장을 마련할 계획을 공유함. 이에 따라 FC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 4차년도 사업과 관련하여 2026년 6월 종료 일정을 공유하고, 성과지표 달성 전략, 모니터링 및 평가(M&E) 체계, 운영 이관 로드맵 수립 방향을 논의 · 후속협력 방안으로 콜드체인 시스템 확산 필요성(특히 내륙 지역)에 대해 청취하고 향후 ODA 사업 연계 가능성을 협의 · 사업부지 소유권 및 공용시설 추가 설치 계획을 확인하고, 운영 기반 정비 사항을 협의함. 또한 환경·위생 관리, 젠더 포용성 강화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
수행결과	□ (오후) 주가나 대한민국대사관 - 목적: 주가나 재외공관 관계자 면담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김현주 2등 서기관 - 내용: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사업 추진 경과와 관련하여 3차년도 사업이 2026년 6월 말 종료되고 7월부터 4차년도가 착수될 예정임을 공유하고, 사업 마무리 단계에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공관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 ·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음을 설명하고 특히 통관 관련 이슈에 대해 동 사업은 현지 조달 방식으로 추진 중이므로 별도의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달함. 이는 가나 ODA 사업 전반에서 빈번히 제기되는 통관 문제와 대비되는 사례로 공유 · 기자재 조달과 관련하여 비구속성 원칙에 따라 현지 조달이 가능한 제품을 활용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중국산 기자재 사용 배경(현지 조달 용이성, 가격 경쟁력, 전압 적합성, 유지보수 용이성 등)을 공유함. 이는 장기적 운영 안정성과 사후관리 측면을 고려한 조치임을 설명 · 신규 ODA 사업과 관련하여 가나 어선원 양성 사업(2027년 제안 사업)의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공관의 협조 필요성을 전달
수행결과	※ 당초 계획 대비 일정 추가 □ (오후) 가나 해양수산 협력 현안 업무 협의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Paul Bannerman 전문가 - 내용: · 가나 해양수산 정책 및 최근 정세 동향과 관련하여, 수산업은 여전히 소규모 연안어업 중심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획량 정체 및 자원 감소로 인해 생산성 제고와 인력 전문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제기되고 있음을 공유. 특히 청년층의 어업 기피와 숙련 선원의 부족으로 어선원 인력 수급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 차원의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확인 · 신규 ODA 제안 사업(가나 어선원 양성)과 관련하여, 단순 기술교육을 넘어 기초 안전교육, 항해·기관 운용, 어획·처리 기술을 포함한 통합 교육과정 설계 필요성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현지 교육기관과의 협력 구조 구축 방안을 논의. 또한 교육 수료 후 취업 연계 및 현장 실습 기회 제공 등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체계 마련 필요성 제기 ·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으로는 현지 제도 및 자격 체계와의 정합성 확보, 민간 어업·해운 분야와의 연계, 단계적 역량 강화(기초→심화 교육) 접근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으며, 단기 연수 중심이 아닌 중장기 인력 양성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는 의견 청취 · 아울러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부 주도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민간 참여 유도, 교육 인프라 및 교재·훈련 프로그램의 현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향후 사업 구체화 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협의
업무⑤	4.28(화) 가나 여성어업인 사업 테마 사업지 개보수 현장 점검 및 이해관계자 협력 논의
수행계획	□ (오전) 테마항 사업지 이동 □ (오후) 사업지 개보수 현장 점검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가나 FC 관계자, 개보수 업체 관계자, 항만청 관계자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내용: · 공사 완료도 및 잔여 공정 점검 · 시설 기능성 및 운영 적합성 점검 · 하자 발생 가능 요소 및 보완 사항 확인 · 운영 주체, 인수 절차, 유지관리 체계 점검 □ (오후) 가나 항만청 업무 협의 - 참석자 :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가나 FC 관계자, 항만청 관계자 등 - 내용 : ·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 협력 사항 협의 · 향후 행정 지원 및 협력 방안 논의
수행결과	※ 대사관 주도 사업 모니터링 추진 □ (오후) 사업지 개보수 현장 점검 및 개보수 업체 관계자 면담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 김현주 서기관, 개발협력 전문관, 가나 FC 관계자, 개보수 업체 관계자 등 - 내용: · 위탁 건설업체 및 주가나 대한민국 대사관과 합동으로 공사 진척 상황을 점검하고, 공정 관리 및 시공 애로사항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 공사 완료도 및 잔여 공정 점검 결과, 최근 물가 상승, 중동 지역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 물류 지연 등 외부 요인으로 일부 애로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나, 시공사는 공기 준수를 위해 공정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 중임을 설명 · 태양광 설비 설치, 화덕 설치 공간 조성, 전기 배선 작업 등 주요 기반 공정은 완료된 상태이며, 냉동·냉장 설비 등 기자재는 2026년 5월까지 설치 완료 예정임을 확인 · 현장 점검 시점 기준으로 도장(페인트) 작업이 진행 중임을 확인하고, 마감 공정으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한 공정 관리 필요성에 대해 논의 · 시설 기능성 및 운영 적합성 측면에서 설비 배치 및 동선이 계획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기 설비 및 마감 공정 등 하자 발생 가능 요소에 대한 품질 관리 중요성을 강조
수행결과	□ (오후) 이해관계자 협력 논의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FC 관계자(Yaa Tiwaha, James, Hayford) - 내용: · 항만청 관계자 미참석에 따라 FC 관계자와 사업부지 관련 인허가 및 협력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 · 사업부지와 관련하여 토지 소유권은 국가(항만청)에 있으나, FC가 해당 부지에 대한 영구 사용 권한을 승인받은 상태임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토지 관련 제약은 없는 것으로 확인 · 향후 운영 단계에서도 항만청과의 협력 관계 유지가 필요함을 공유하고, 인허가 및 행정 지원과 관련된 협력 체계 지속 필요성에 대해 논의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⑥	4.29(수) 가나 여성어업인 사업 수혜자 대상 모니터링 및 해양수산 협력 현안 업무 협의
수행계획	□ (오전) 시설 운영 준비 상태 점검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가나 FC 관계자, 여성어업인 대표 및 수혜자 등 - 내용: · 개보수 시설 활용 준비 상태 및 초기 운영 계획 점검 · 시설 운영 · 관리 주체 및 역할 분담 현황 점검 · 예상되는 애로사항 및 지원 필요사항 파악
	□ (오후) 모니터링 및 향후 지원 협의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가나 FC 관계자, 여성어업인 대표 및 수혜자 등 - 내용: · 수혜자 이용 편의성 및 추가 개선 수요 확인 · 향후 역량강화 교육 및 운영 지원 계획 협의 · 사업 종료 후 지속 운영 가능성 사전 점검
	□ (오후) 가나 해양수산 협력 현안 업무 협의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이윤홍 명예수산물관, Paul Bannerman 전문가 등 - 내용: · 가나 해양수산 정책 및 정세 동향 청취 · 가나 여성어업인 사업 추진 현안 및 리스크 점검 · 어업인 커뮤니티 반응 및 사회적 수용성 확인 · 신규 ODA 제안 사업(가나 어선원 양성, 샤마 지역 어항개발 사업) 추진 관련 자문
수행결과	□ (오전) 시설 운영 준비 상태 점검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가나 FC 관계자(Yaa Tiwaha, James, Hayford 등), Cynthia 테마 여성어업인 협회 대표 및 수혜자 등 - 내용: · FC 및 수혜자와 함께 개보수 시설의 활용 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초기 운영 계획 및 실제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현장 모니터링 실시 · 시설 운영·관리 주체와 역할 분담 현황을 확인하고, 테마 여성어업인 협회를 중심으로 운영 구조와 FC의 관리·지원 역할에 대해 공유 · 시설 사용 방식과 관련하여 외부 이용자 접근 가능성, 사용료 부과 여부 등 수익 창출 기반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운영 초기 단계에서의 관리 기준 마련 필요성에 대해 협의 · 위생 관리, 시설 유지관리, 장비 활용 역량 등 실제 운영 단계에서 예상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교육 확대 및 운영 매뉴얼(프로토콜) 마련 필요성에 대해 논의 · 시설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초기 단계에서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술·운영 지원 필요성을 공유하고, 향후 사후관리 및 후속 지원 방향에 대해 협의
수행결과	□ (오후) 모니터링 및 향후 지원 협의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가나 FC 관계자(Yaa Tiwaha, James, Hayford 등), Cynthia 테마 여성어업인 협회 대표 및 수혜자 등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 내용: · 여성어업인 대표 및 수혜자와의 면담을 통해 시설 활용 계획, 작업 방식, 이용 빈도 등 실제 운영 구상을 청취하고, 초기 운영 단계에서의 현장 적응 수준을 점검 · 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 대상 범위, 운영 시간, 예약·관리 방식 등 기본 운영 기준 설정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협회 내부 의사결정 구조 및 책임 주체 명확화 방안을 협의 · 수익 창출 및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수산물 가공·판매 연계 가능성, 공동 판매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자립적 운영 기반 마련 방향을 공유 · 시설 활용 확대 측면에서 지역 내 타 어업인 또는 외부 이용자 참여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따른 이용 기준 및 관리 체계 정비 필요성을 공유 · 사업 종료 이후 지속 운영과 관련하여 초기 운영 안정화를 위한 단계적 지원 필요성, 현지 주도의 운영 전환 시점 설정 등에 대해 논의하고, 향후 후속협력 및 지원 연계 가능성을 협의
수행결과	□ (오후) 가나 해양수산 협력 현안 업무 협의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이윤홍 명예수산물 등 - 내용: · 가나 해양수산 정책 및 산업 동향과 관련하여, 연안 중심 소규모 어업 구조와 더불어 항만·어항 기반 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며, 어업 생산성 제고와 인력 전문화가 주요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음을 청취 · 어업인 커뮤니티의 사회적 수용성과 관련하여, 여성어업인 중심 사업에 대한 수용성은 높은 편이나, 지역 내 타 어업인과의 관계 설정, 시설 이용 범위 및 관리 기준 설정 등은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 · 신규 ODA 제안 사업(가나 어선원 양성)과 관련하여, 현지 어선원 부족 및 숙련 인력 미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정책적 수요가 높은 분야임을 확인하고, 교육·훈련 체계 구축과 함께 취업 연계, 현장 실습 기반 강화 등 실효성 있는 인력 양성 구조 설계 필요성 강조
수행결과	□ (오후) 가나 해양수산 협력 현안 업무 협의 - 참석자: 김주형 부연구위원(총괄), 임해주 연구원, Paul Bannerman 전문가 - 내용: · 사업 설계 측면에서 물리적 시설 구축 이후 운영 단계로의 전환 전략이 상대적으로 미흡할 수 있으며, 초기 단계부터 운영·관리 체계와 재정 구조를 포함한 통합적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 · 특히 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해서는 단순 생산·가공 기능을 넘어 시장 연계(판매·유통), 품질 관리, 위생 기준 등 가치사슬 전반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 ·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외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단계별 자립 전략(초기 지원 → 점진적 자립 전환) 설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수익 모델과 운영 기준을 사전에 구조화할 필요성 제기 · 또한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인프라 구축과 병행하여 제도적 기반, 교육·훈련 체계, 민간 참여 유도 등을 동시에 설계하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사진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